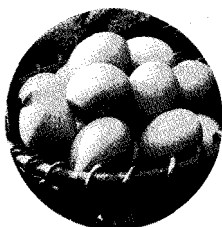


## 등급정보 (계란)



▷ 24개 업체에서 생산한 3천8백88만2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 85.1%, 1등급 12.4%, 2등급 0.9%, 3등급은 1.6%를 차지. 전월대비 8백92만9천개(29.8%) 증가, 전년동기(21개 업체, 3천1백64만1천개)대비 7백24만1천개(22.9%) 증가, 급원누계는 2억9천8백89만5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5천2백16만2천개(21.1%)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 중량<br>규격 | 개       | 1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
|          |         | 개수      | %    | 개수     | %    | 개수    | %    | 개수    | %   |
| 09년 1~9월 | 298,895 | 251,537 | 84.2 | 39,299 | 13.1 | 2,035 | 0.7  | 6,024 | 2.0 |
| 09년 8월   | 29,953  | 25,870  | 86.4 | 3,004  | 10.0 | 335   | 1.1  | 745   | 2.5 |
| 09년 9월   | 38,882  | 33,071  | 85.1 | 4,839  | 12.4 | 366   | 0.9  | 607   | 1.6 |
| 왕란       | 198     | 148     | 74.9 | 50     | 25.1 | -     | -    | -     | -   |
| 특란       | 29,928  | 25,627  | 85.6 | 4,157  | 13.9 | 74    | 0.2  | 70    | 0.2 |
| 대란       | 8,722   | 7,272   | 83.4 | 632    | 7.2  | 282   | 3.2  | 537   | 6.2 |
| 중란       | 33      | 23      | 70.3 | -      | -    | 10    | 29.7 | -     | -   |
| 소란       | -       | -       | -    | -      | -    |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 전남 산란계농가 출자, 녹색계란(주) 출범

산란계 생산농가들이 모여 농업회사법인 '녹색계란 주식회사'를 출범했다. 지난 9월 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창립총회를 가진 녹색계란 주식회사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나종석·이기병·나병기 전남도의원, 강인규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원, 양계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녹색계란(주)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 인증농가를 중심으로 산란계 사육농가 47명이 12억4천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참여했으며 곧 전문CEO 및 팀장 등 경영진을 공개 채용하는 한편 나주시 식품산업단지 내에 거점 계란유통센터를 건립한다. 앞으로 계란 집하 선별장, 저온저장고, 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춰 신선란 및 가공품을 생산, 유통단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농가들은 그동안 힘들게 계란을 생산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계란 유통

의 수급조절 능력 향상은 물론 시장 교섭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 KRC 도계장 직거래 추진

대군 사양가들이 산란계 경영을 최고로 이끌기 위한 모임체인 KRC는 최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산란계의의무자조금의 원활한 거출을 위해 KRC와 도계장 직거래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KRC 권영택 회장은 "AI, FTA, 계란 소비홍보 등 양계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무자조금 정착이 필수 사안인 만큼 KRC 회원들이 솔선수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KRC는 회원 25명으로 사육규모는 약 1천만수로 연중 노계 출하물량이 약 300~400만수에 달해 지난해 산란노계 도계실적 2천350만수 대비 약 13~17%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조금 거출에 힘이 될 전망이다.